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4월 3일  
제1890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4-5.7)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부분)〉, 렘브란트, 국립 미술관, 런던, 영국

## 사순 제5주일 (다해)

**제 1 독서 이사 43,16-21** |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리라.

**화답 송시편 126(125)**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서 필리 3,8-14** |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을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복음 요한 8,1-11** |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때에<sup>1</sup> 예수님께서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sup>2</sup>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sup>3</sup>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sup>4</sup>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sup>5</sup>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sup>6</sup>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sup>7</sup> 그들이 졸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sup>8</sup>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sup>9</sup>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sup>10</sup>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sup>11</sup>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 성화 해설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는 바로크 시대에 활동하면서 독특한 주제를 담은 성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연극 무대와 같은 느낌을 전해준다.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묻고 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이 예수님과 여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다. 이 빛은 회개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타낸다. <정응모 신부>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부분)>, 렘브란트

### †복음 묵상

구약의 율법에는 이웃의 남편 또는 아내와 간음한 자는 죽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레위 20,10; 신명 22,22-24 참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왜 이 규정을 주셨을까요?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함 속에 머무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레위 11,45; 20,26 참조).

오늘 복음에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 규정을 근거로 간음한 여인을 단죄하려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올라가기를 씩으려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받아치십니다. 그러자 단죄하던 자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타인에게 적용하는 단죄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아무도 하느님과 이웃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평가하려는 잣대를 날카롭게 ‘연마’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게 마련한 잣대를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며 내면화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본정신인 거룩함은 어쩌면 이웃을 향한 잣대에 집중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주님 수난 40일 간의 여정

깊은 침묵 중에 온전히 사랑이신 하느님과 만나는 은총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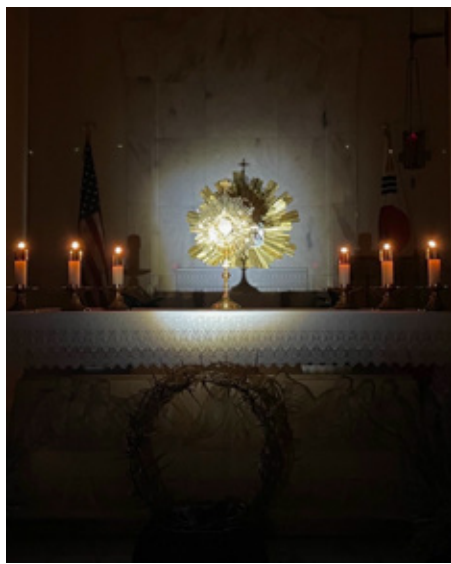
- ◆ 십자가의 길과 미사 |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 주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 예식
- ◆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 | 매주 수요일 저녁 6:30-8:00

 성체 조배 Adoration of the Eucharist

성체 조배란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믿으며, 깊은 침묵 중에 그분과 마주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미사 중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하느님을 만나지만 성체 조배는 온전히 나 혼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만남을 청하는 시간이며 또 하느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성체 조배는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며 나를 성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중>

 성체 현시 Exposition of Holy Eucharist



신도들이 흠송할 수 있도록 성체를 현시하는 예식이다. 성체성사가 성합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감실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 사적인 성체 현시로 여겨지고, 모든 조배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광의 루돌라에 담긴 큰 제병을 현시하면 공적인 성체 현시로 여겨진다. 성체 현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의 주요 의도를 드러내야 한다. <성체조배에 관한 지침>은 신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조배를 가지 있는 신심 행위로 여긴다. 그래서 본당 사목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 사십시간 기도를 봉헌하면서 성체를 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톨릭 전례사전>

묵상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통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결코 잊지 않고,  
 당신의 피땀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잘 간직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하게 해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되살려 주시며,  
 세속적인 것과 부정부패로  
 남들을 기만하지 않고,  
 자비로우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십자가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며  
 주님 수난 성 금요일이  
 바로 빛의 파스카 축제로 향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십자가의 길 기도 중,  
 로마 콜로세움, 2015년 성 금요일>

성주간 일정

-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30
-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7:45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30
- + 성 토요일(4월 16일)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30



### 1 십자가의 길과 미사 (오전 5:30)

-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수난 여정에 함께 하며 기도과 자선과 희생의 삶을 기도합니다.

### 2 The Light is ON for You

- 사순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8시까지 성체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8시에는 성체강복도 있습니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같은 시간에 실시됩니다.

The Light is ON for You

<https://thelightison.org/>



### 3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알링턴 교구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BLA 약정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세요.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본당 약정 현황	세대수	후원 세대	참여율
	2,370	335	14%

### 4 유아세례

- 일시 : 4월 9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4월 10일(일) 오전 11:40 (B-3,4)
- 소공동체 봉사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6 단체장 회의

- 일시 : 4월 10일(일) 오전 11:40 (B-3,4)

### 7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4월 10일(일) 오후 1시 (B-3,4)

### 8 성모회원 모집

- 성모회에서 봉사해 주실 신자분을 모집합니다.
- 김 수산나 성모회장 (703) 547-7703, 주임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성삼일 전례 안내

- 4월 14일 성 목요일 :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30
- 4월 15일 성 금요일 :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오후 7:45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30
- 4월 16일 성 토요일 :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30
-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 : 오전 8시, 10시, 오후 5시(청년) 미사 (주일학교 미사는 10시에 친교실에서 봉헌됩니다.)

### 11 세계주교시노드 전신자 경청회


- 일시 : 4월 3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2 세계주교시노드 경청회 설문지 접수

- 각 가정에 배송된 세계주교시노드 관련 경청회 설문지를 4월 10일(일)까지 본당 입구 설문지함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특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의 생활화**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성당 주변(Rippling Pond Dr.) 이웃들의 정원에 쓰레기나 음료수 빈칸 등을 버리지 마세요.

 새벽 미사 참석 시, 저속 운행(15마일)과 성당 방향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NEW** **코로나19 본당 행정지침**

오미크론 변이 대 확산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당의 코로나19 행정 지침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으로 하며 손 소독은 계속됩니다.
2. 영성체 방식은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3. 본당 입구 성수대와 성가책 사용도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전염병의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유럽의 확산세와 비슷한 코로나19 감염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님의 4월 기도 지향**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

“그가 절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스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사야서 53:5)

**3월 3일(목) - 4월 13일(수)**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십자가의 길과 미사  
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예식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30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7:45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30  
† 성 토요일(4월 16일)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30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3월 27일(사순 제4주일)

주일헌금	\$ 6,467.00
교무금	\$ 7,890.00
교무금(신용카드)	\$ 8,530.00
2차 헌금	\$ 3,068.00
감사 헌금	\$ 440.00
온라인 봉헌	\$ 2,015.00
합계	\$ 28,41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4월 7일(목) 오후 5:00-6:00  
4월 8일(금) 저녁 8:00-9:00  
4월 10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5) - 다양한 문화의 결합 : 비잔틴 양식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